



건협 전북지부 "5월 1일 노동절에도 정상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도 정상 운영을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협 전북지부는 평일 검진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동절인 5월 1일 정상 근무와 함께 종합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많은 직장인이 휴무하는 날로, 평소 바쁜 일정으로 검진을 미뤄왔던 시민들에게 여유롭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은 평일과 동일하게 종합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및 처방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협 전북지부는 휴무일을 활용해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대기 시간 최소화와 원활한 검진 진행에도 힘을 기울인다. 한편 노동절은 일반적으로 민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운영되지만, 병원과 일부 공공 서비스 기관은 정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정승원 교수,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돼

우석대학교 정승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부터 3년간이다. 우석대학교는 정 교수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된 범정부 협의기구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 협력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애인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수준의 심의기구로 평가된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정책 자문을 이어오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위촉으로 이어졌다. /오상근 기자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진안군지회(회장 유성준)는 16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장애인 장애인 가족,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어울림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현장 낭독과 내빈 축사, 장애인 복지 유공자 12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2부 어울림마당에서는 축하공연과 회원 장기 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 삼천2동 진안왕족발, 착한가게 동참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주민센터(동장 김성근)와 삼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승혜)는 지난 14일, 삼천동의 맞접으로 사명받고 있는 진안왕족발(대표 박노경)을 방문하여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진안왕족발은 삼천2동 착한가게 제23호점으로 신규 등록됐다. 박노경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 /김재훈 기자

첨단 방산 핵심인재 양성 · R&D 강화

전북대, 국방과학연구소와 '맞손'

미래 첨단 국방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안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진완)가 손을 맞잡았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양오봉 총장과 이진완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협력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AI와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 핵심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학술정보와 교육·연구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며, 교원·연구원·임직원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은 향후 별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으로, 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첨단 무기체계, AI 기반 국방기술, 무인·자율체계, 시험평가 및 국방 신소재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청사진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함께 키워내는 전략적 협력의 위대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전북대가 국가 안보와 첨단 전략산업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국방 연구·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눈부시게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국가 에너지기술 R&D를 기획·평가·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현장에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기부 방법과 관심 지자체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현장기부 이벤트를 운영해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10만 원 이상 현장기부자에게는 고향기부, 표고버섯, 쌀 등 전북 농산물을 추가 증정했으며, 천연꿀 참기름 청제품 등 주요 답례품을 전시하고 시식·시음 코너도 함께 운영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 해리면 지사협, 하천변 환경정화 봉사

고창군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규, 홍정목)가 지난 15일, 평소 쓰레기 무단 투기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 하천변을 찾아 대대적인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하천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영농 폐비닐 등을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해당 구역은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인해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으나,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한편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영인포점 밀반찬나눔, 화장실 안전바 설치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군산지역 장애아동 위한 성금 기탁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대표 김선례)는 16일 군산 시청에서 지역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금은 조록우산 전북지역본부들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재활·교육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선례 대표는 "장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희망찬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록우산 전북지역본부 박미애 본부장은 "후원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군산지역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 내 아동에게 잘 전달하여 꼭 필요한 치료비로 사용하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는 2017년 설립된 일지리출생형 사회기업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이 탑재된 CCTV, 수·배전반 제어장치 시스템 등 다수



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과 2022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 표창 수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장애인 고용과 사회 환원을 지속하는 모범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개최... 우수 금고 시상

원광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우수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2026 전북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했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전주라한호텔에서 '2026 전북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열고 지난해 사업 분야별 우수 실적을 거둔 금고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해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원광새마을금고가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영우수부문에서는 상명새마을금고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전주승천새마을금고와 부령새마을금고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혁신경영부문에서는 태인새마을금고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남원중앙새마을금고와 장수새마을금고가 우수상을 받았다. 또 조직원문화부문 우수상은 김제하남새마을금고, 상생발전부문 공로상은 신전주새마을금고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을 넘어 각 금고의 경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남원 송동면, 복지기반 확충 협약 체결

남원시 송동면(면장 진군환)은 지난 15일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늘어나는 독거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과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송동면 특화사업인 홀로가꾸 '행복밥상' 지원사업과 사랑나눔 후, 어르신 생일찾아주기 사업에 협력하는 생활관리사도 함께 참여하여 자리는 밝혔다. 양 기관은 특화사업 이외에도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일 일거구 소풍행진 추진 시 맞춤형물 대상기부 방문 등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군환 송동면장은 "행정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안전 증진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 대상자는 1일 1가구 방문상담과 생활 실재 확인을 통해 선정됐으며, 금동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평소 이동이 불편해 외출이 쉽지 않았는데,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아 이제는 마음놓고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봉래 동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가유산청, 김제 금산사 등 찾아 현장점검

김제시는 지난 15일 국가유산청 윤순호 문화유산국장이 지역 내 주요 국가유산인 금산사와 귀신사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먼저 금산사를 찾아 해덕왕사탑비, 금강계단, 미륵전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특히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해덕왕사탑비'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귀신사로 이동해 보물인 대적광전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사찰의 주요 숙원 사업인 '공양간 건립'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오늘 오감체험 행사

김제시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이해증진을 위한 체험 행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걷는 길, 마주 보는 꿈'을 주제로 △장애이해 OX퀴즈, △시각 체험, △수어 체험, △휠체어 체험, △모루 공예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김제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김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협력해 진행된다. 한편 김제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김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